

목포·순천·강진의료원 평일 진료 2시간 연장

지자체, 재난안전대책 본부 구성 24시간 응급진료 핫라인 구축 등 환자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총력

전남지역 공공병원인 목포·순천·강진의료원의 평일 진료시간이 연장되고, 개인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가 검토되는 등 자치단체들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의 보건 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목포·순천·강진의료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등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목포·강진의료원은 애초 오후 5시30분까지인 진료시간을 오후 7시30분까지 두 시간 연장 운영에 들어갔고, 순천의료원은 오후 8시까지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전남도도 또 전공의 집단 행동에 따른 근무지 이탈 등에 따라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걱정해 자발적으로 방문을 자제하는 환자들이 잇따르면서 전주(2월 7일-16일)에 견줘 전남 35개 응급의료기관(광역응급의료센터 2곳·지역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기관) 내원 환자가 13.9%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기간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순천 성가톨릭병원과 목포한국병원의 경우 8.1%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도는 전남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총괄대책반·응급의료지원반 등 6개 부서 8개 실무반을 운영하는 한편, 24시간 응급진료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개인의 집단 휴진 등 의료 대란 확대 우려에 따라 선제적 대책으로 전남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26·병원 73곳)의 연장 운영 방안을 마련, 평일 진료시간 확대 요청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의료 수가를 인상하거나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해 동참 의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진료가 필요한 도민에 대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 상태다.

한편, 전남지역의 경우 5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26명 중 92명(73%)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로, 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화순전대병원(인턴 24명·레지던트 67명)의 경우 복지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79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전남도도 근무지를 이탈한 여천전남병원(2명), 여수전남병원(2명), 성가톨릭병원(9명)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차세대배터리산업' 초석 다진다

산업진흥협의회 개최 산학연관 네트워크로 마중물 이차전지 시장 현황 등 공유

광주시가 미래세대 첨단산업 중심인 '차세대배터리산업' 초석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는 27일 북구 이노비즈센터 대회의실에서 차세대배터리산업진흥협의회를 열고 리튬인산철(LFP) 산업육성 용역결과와 이차전지 시장 현황 등을 공유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호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세방리튬배터리, 인셀, KBIA(한국전지산업협회), KIER(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ITECH(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RI(한국전기연구원) 등 산학연관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2월 광주시 차세대배터리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자문기구로, 배터리 산업에 대한 진흥전략 제시와 정책제언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지난해 배터리 정책의 성과와 올해 계획을 통해 이차전지 시장의 흐름, 산업 이슈 등 세계시장 여건을 재확인했으며, 지난해 추진했던 리튬인산철(LFP) 산업육성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등을 수렴했다.

리튬인산철 배터리는 양극에 인산철을 적용해 고안정성, 저가격화를 이룬 이차전지다.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광주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산업 과제와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고도화, 밸류체인 구축, 기술사업화계획 등이 담겨있다.



광주시는 27일 북구 이노비즈센터 대회의실에서 호남대, 조선대, 세방리튬배터리, 인셀, KBIA(한국전지산업협회), KIER(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ITECH(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RI(한국전기연구원) 등 산학연관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배터리산업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현재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산업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리튬인산철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과 산학연 각 분야 전문위원의 제언 등을 배터리 사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또 관련 인력양성 아카데미 운영, 시설 및 장비 구축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에너지 및 광물 가격 변동,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 등으로 전기차 수요가 둔화 추세이지만 전기차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그 변화의 중심에 배터리가 있다"며 "산학연 전문가들과 정책교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해 배터리산업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올해 결론내야”

강기정 광주시장 차담회...4월 소음피해 대책 토론회 개최

강기정 광주시장은 27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만드시 올해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내년에는 지방선거 국면이 들어가 이슈가 분산되고 호도될 수 있는 만큼 광주시나 무안군 입장에서 올해가 군공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확신한다"며 "지금의 계획이든 또 다른 계획이든 올해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의 계획"은 지난해 12월 강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만나 광주 민간·군 공항 모두 무안군 제공항으로 옮기는 데 노력하기로 약속하고 발표한 로드맵이다. 강 시장은 다만 지금의 계획을 벗

어난 또 다른 계획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강 시장은 또 이날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와 함께 3차 회동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일단 오는 4월 24일 전남도,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와 연구원, 국방부 등과 소음피해 대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광주시는 오는 5월께 호남 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에 맞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전남도·무안군·신안군 등 인접 시·군, 국토교통부·공항공사·철도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동회의(원탁회의)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교통약자 차량 '새빛콜' 대기 시간 단축

광주시 '차고지 출발→이용 신청 많은 장소서 대기' 변경

광주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새빛콜' 이용 방식을 개선해 대기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새빛콜은 기존 4곳 차고지에서 차량이 출발하던 것을 이용 신청이 많은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출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6~8월 18만974건 운영 현황을 장애인 다수 거주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병원, 복지관, 아파트 등 신청이 많은 80곳을 도출했다.

3시간 단위 탑승객 주요 출발지, 탑승지 등을 추가로 파악했다. 조선대학교병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인근에서 이용이 많았다.

분석 내용을 토대로 차량은 시간대별 다수 신청 지역에서 머무르다가 풀이 있으면 즉시 출발하게 됐다. 그동안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 장애인이 탑승까지 대기에 불편을 호소했지만, 다소나마 그 시간을 줄일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했다.

광주에서는 새빛콜 127대, 바우처 택시 219대가 교통약자 이동을 돕고 있다.

배달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법정대수 확보를 위한 중차, 휠체어 이용 여부에 따른 전용 차량과 바우처 차량 분리 배차, 전남권으로 운영 확대 등 정책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농번기 앞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강화

전남도, 다음달까지 고용주 대상 인권 침해 예방교육

전남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 침해 예방교육을 3월 말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고용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9개 시·군에 2400여 명이 들어와 있으며 올해는 법무부로부터 8596명을 배정받았다.

교육은 전남도와 계절근로자 도입 시군 공동으로 이뤄진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대비해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한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

터장이 강사로 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준수, 다양한 인권 피해 상담 사례 등을 중점으로 진행한다.

전남도는 이번 교육으로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와 전남지역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행민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펼칠 예정"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광역시동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동구를 위한

아픈아이

긴급병원동행 서비스

맞벌이 등으로 병원진료 동행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하여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내용 | 자녀의 긴급 진료,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등으로 병원방문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병원동행 서비스

서비스 대상 |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4세 ~ 18세 이하(신청일 기준)

이용 시간 | 평일 09:00 ~ 18:00 (접수는 17:00까지)

이용 금액 | 무료 (병원비, 약제비 본인 부담)

신청 방법 |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홈페이지 회원가입 또는 전화 신청
Tel. 062)670-0575 / 0576




아이누리 긴급병원동행

아동 픽업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집 또는 학교(돌봄시설 등)에서 광주광역시 병의원 이동

병원동행



접수 → 진료 및 치료 → 수납

귀가



병·의원 → 집 또는 학교
-보호자 확인 후 인계

보호자 안내



아동상태 및 병원동행 결과 부모에게 서비스 전과정을 전달

문의 |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Tel. 062)670-0575 / 0576



광주여성가족재단
Gwangju Foundation for Women & Family



광주 아이키움
www.광주아이키움.kr